

2016년 본당 시목 목표

-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상 구현 -

서울대교구는 2014년부터 복음의 기쁨과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‘성경, 기도, 교회의 가르침, 미사, 사랑의 실천’의 다섯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사목방향을 정해 왔습니다. 2016년에는 세번째로 ‘교회의 가르침으로 더 다져지는 신앙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교회의 가르침은 대표적으로 사도신경,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, 가톨릭교회교리서에 요약되어 있는데, 올해는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하는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.

매마침 교황님은 금년 12월 8일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부터 내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자비의 특별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. “**니희 이미지끼시 지비하신 것처럼 니희도 지비로운 사람이 되리**” (루카 23,46)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“**교회는 하느님의 지비로 일러야 할 시명이 있습니다...교회는 지비로 고백하고 신포할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.**” (‘지비로우신 하느님’, 13항, 15항) 교황님은 선대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, 이 시대의 사고방식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립하는 듯하고, 자비라는 이념을 인간의 마음에서 배제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시면서,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바탕이며,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도구임을 강조하셨습니다.

2016년 본당사목을 통해 교황님의 권고대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우리 각자도 가정 안에서, 직장 안에서, 단체 안에서, 이웃들 안에서, 하느님의 자비를 구현할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. 본당에선 2014년부터 ‘청담동 성당의 비전과 목표’를 제시하면서 ‘**시명을 신포하는 교회-신도하는 교회-행복한 교회**’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성으로,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. 본당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‘**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하는 노력들**’은 좋은 영감을 제공하고,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는 2016년에는 우리 자신부터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,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의 행복과 신앙의 기쁨 그리고 행복한 본당을 만들기 위한 은총의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
1.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합니다.

- 1) 하느님의 자비를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- 2)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눔, 자선, 봉사를 생활화 합니다.

2. 본당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행복한 교회상을 구현합니다.

- 1) 내집같은 본당환경 개선과 교우들간의 친교에 힘씁니다.
- 2) 각 단체별로 실천목표를 세워 단체 활성화와 회원 배가에 힘씁니다.

3.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합니다.

- 1)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본당의 교육, 전례,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.
- 2)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되도록 기도생활과 단체 및 봉사활동을 병행합니다.

2015.11.29 대림 제1주일
주임신부 주경수(세비스티아노)

♣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

봉 헌 예 목		감 사 헌 금 (11월 24일 현재)				교무금 납부 현황	
교 무 금	27,980,000	영어성경반	100,000	한 로사	100,000	총 세대수	3,696
주일봉헌금	11,224,100	방 벨라델다	1,000,000	손 율리아나	500,000	총 납부세대	1,307
		정 화경안드레아	500,000	윤 마리아	100,000		
시설보수 2차헌금	5,226,760	박 마리아	100,000			지난주 납부세대	5
성소후원금 (6건)	342,000	합 계		2,400,000		지난주 납부율(%)	35.4